

세계적인 빙설시설 기업 심코그룹 :

주한 중국대사관

장춘시에 투자해 중국 빙설시장 더욱 깊이 개척할 터

재한 중국류학생 학련간부강습회 개최



심코그룹 회장 커루디

2027년 제 33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개최를 앞둔 장춘시가 전세계 빙설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28일, 20년간의 '빙설 약속'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세계적인 빙설시설 기업인 캐나다 심코그룹(西姆科集团) 회장 커루디는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장춘시에 투자해 중국 빙설시장을 더욱 깊이있게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코와 장춘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심코는 장춘아시아동계운동회(亚冬会)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기술 협력은 서로간에 우정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20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커루디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장춘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20년이 지나면서 업계 기술은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경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친구'에서 '새로운 협력자'로의 변화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술 리듬의 비약을 의미한다. 커루디는 심코의 현재 핵심 방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천연 냉각제(制冷剂)를 전면 도입하여 독창적인 맞춤형 빙설 시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빙설 경기장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에너지 소비와 유지 관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단순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기술만이 경기장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코가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다.

1997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업계 선구자인 심코는 놀라운 리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 기술과 서비스는 2007년 장춘아시아동계운동회,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그리고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등 여러 국제대회에 기여했다. 최근 몇년간 심코는 '친환경 저탄소'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천연 냉각제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열 회수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네스 기록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장'으로 인증된 상해 요설빙설대월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장춘이 심코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커루디는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는 풍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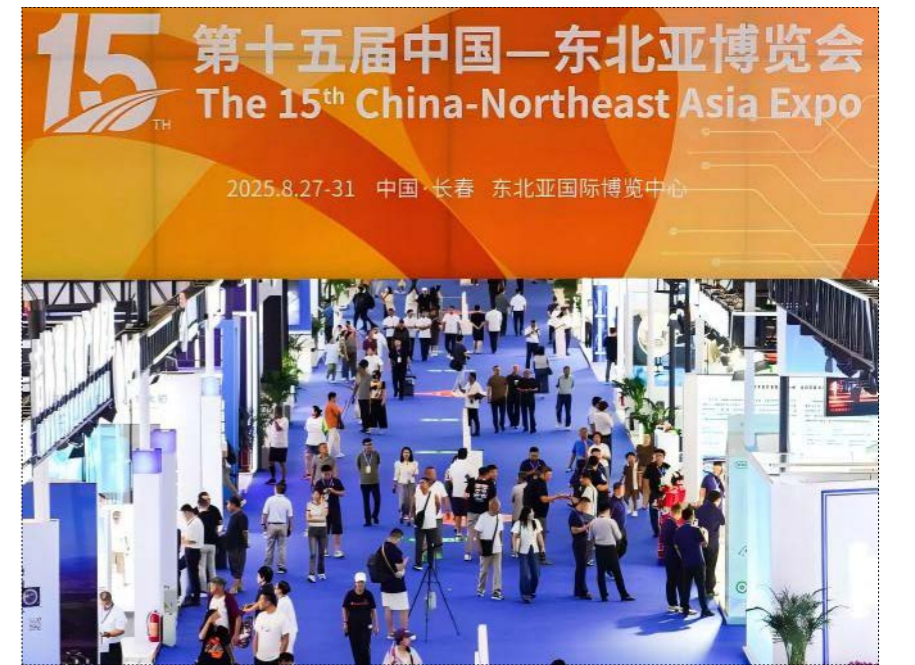
자연자원이다. 장춘은 겨울철의 긴 적설 기간과 우수한 설질(雪质)을 자랑하는 천연의 빙설 스포츠 훈련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더욱 매료된 것은 이 도시의 깊은 빙설 유전자이다. "중국 빙설 스포츠의 주요 발상지인 장춘은 짙은 빙설 문화유산과 넓은 대중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빙설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은 경기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는 또한 길림성과 장춘시가 최근 몇년간 빙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건설과 관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자연적 조건, 인문적 분위기, 정책적 지원 등 이러한 다양한 장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코의 친환경 기술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사업해온 심코는 산업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해왔다. 커루디는 북경동계올림픽 이후 중국 빙설산업이 '소수 취미'에서 '대중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장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장춘을 다시 주목하는 것은 회사의 중국 시장 지속적 정책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심코는 풍부한 기술 축적과 방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점을 활용해 중국 빙설산업 발전에 깊이 녹아들고 이로부터 다각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 뜨거운 땅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에 희망하고 있다.

커루디는 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는 빙설의 축제이자 젊음의 무대입니다. 전세계 친구들이 장춘에 모여 빙설의 약속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장춘문화관광

자신을 발전시키고 중한 관계 발전과 중한 청년 우호에 기여하는 젊은 역량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이번 강습회는 전한학련의 2026년 주요 활동 소개, 학련 간부 경험 공유, 량회 정신 학습, 심리건강 지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련 간부들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학련의 중점 업무에 대해 논의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강습회는 함께 공부하는 류학생들을 위한 봉사 역량과 소양을 향상시켜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公参) 마귀생이 관련 강습을 주관하고 총평을 진행했다. / 중국주한대사관

길림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2025년 제 15회 중국-동북아박람회

/ 신화사

중앙의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길림성 당위 및 정부 지시 '해외 진출' 업무 요구를 실천하며 '해외 진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길림성 기업 '해외 진출' 정책 연구가 3월 27일 장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는 길림성상무청과 중국 수출입신용보증회사(이하 '중신보') 료녕지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 길림성공업정보화청 등에서 협력하였다. 행사에는 길림성의 주요 대외상협회(商协会), '해외 진출' 기업 및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책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핵심 수요에 따라 정책 해설, 리스크 관리, 경험 공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국가외환관리국길림성분국 전문가는 해외투자 협력과 관련된 외환 정책을 상세히 설명,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환 업무를 처리하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상무부 협력사에서 파견한 고급보안전문가는 해외 안전 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실전 교육을 통해 기업의 안전 방어선

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중신보(中 信保) 전문가는 국가의 주요 정치, 경제 및 신용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수출신용보증 정책, 보험 적용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하여 기업에 전 과정 리스크 보장 방안을 제공했다.

연구 현장에서 중국전력공정건설링 그룹동북전력설계원, 길림성북양중약 발전개혁위원회, 길림성공업정보화청 등에서 협력하였다. 행사에는 길림성의 주요 대외상협회(商协会), '해외 진출' 기업 및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책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정책의 정확한 해석, 구체적인 실무 지침, 경험 공유를 통해 여러 기업의 정책 리해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해외 경영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한편 길림성상무청은 금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정책 혁신을 강화하고 서비스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후속 조치를 심화하여 해외 진출 과정에서 안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길림성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길림성상무청

한국 전문가, 중국 피지컬 AI 높이 평가

2026 '중관촌 포럼' 년례회의 분과 포럼인 '중한 과학기술혁신협력 포럼'에서 한국측 인사들은 중국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협력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가 지난 해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피지컬 AI 로보트 사용자 지출 규모는 14억달러 이상에 달하며 2030년에는 770억달러로 급증해 년 평균 복합성장률이 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참 김진동은 "중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자원,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개발 능력 및 거대한 응용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양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한다면 글로벌 표준 제정, 공급사슬 안정성 확보 등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은 "양국은 소재, 핵심 부품, 완제품 응용에 이르는 전체 산업사슬에서 전체의 상호 보완성과 거대한 협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 심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보트 산업사슬의 성숙과 보급을 가속화해 피지컬 AI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차관) 린신(林新)은 "중국은 완전한 제조업 체계, 방대한 시장 규모,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집적회로(IC),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갖

추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측과 함께 양국이 마련한 정부간 협력 메커니즘 및 채널을 잘 리용해 전방위적·다층적 실무 협력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함께 손잡고 AI 분야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해인공지능연구원 원장 송해도는 중한 양국은 최근 수년간 AI, 피지컬 AI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과 산업 인력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관련 표준 제정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하고 피지컬 AI 시대에 양국이 함께 과학기술로 세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중관촌 지우(智友)연구원이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 신화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富 民 文 和 自 公 法 爱 敬 友 善
强 主 明 谐 由 正 治 国 业 信 善

中华圆梦 万马奔腾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